

“실학파에 대한 진솔한 탐구로 현대의 삶 반추하고 싶었다”



역사추리소설 '방각본 살인사건' 을 펴낸 김탁환 교수를 만나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싣고 100분 정도 남으로 내달렸다. 교수로 몸담고 있는 한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만난 김 교수는 그저 이웃집 아저씨 같은 편안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매우 편안한 첫 인상이다.

교수라는 직함보다도 소설가로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김 교수의 연구실. 내세울 만한 것은 역시 책이었다. 양쪽 면에 배치된 책장 안에는 각 분야의 책들이 빼곡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역사와 철학관련 책들이 단연코 많았다.

● 삶을 탐험하는 소설가 김탁환

단정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기억과 자료를 가로지르며 삶을 탐험하는 소설가 김탁환은 1968년 10월27일, 군항제로 유명한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났다. 창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7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였고, 1989년에는 대학문학상 평론 부문에 '길안에서의 겹쳐보기-장정일론' 으로 당선되었다.

학부 시절 '문학예술연구회(약칭 문예연)' 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였으며 1991년 대학원에 진학하여 고전소설을 공부하면서 틈틈이 시와 소설을 습작하였고,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노동문학회 '건설' 에서 활동하였다. 해군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쳤으며 1999년 3월 건양대학교 문학예상정보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돼 교수의 길을 걷게 됐다.

김 교수는 역사소설을 많이 썼다. 1999년 12월, 조선 중기 지식인들에게 지식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투영하여 그 해답을 찾아 헤맨 새로운 방식의 후일담 소설 '허균, 최후의 19일' (전2권) 을 발표하였다. 2000년부터 2001년 늦봄까지 임경업의 젊은 시절을 성장과 방황의 관점에서 다룬 대하역사소설 '압록강' (전7권)을 출간하였다. 2002년 8월 황진이의 내면을 1인칭으로 살핀 고백소설 '나, 황진이' 를 발간하였으며 2002년 11월 김만중의 마지막 나날을 다룬 추리로맨스 소설 '서러위라, 잊혀진다는 것은' 을 펴냈다.

2002년 3월 한남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조교수로 부임한 후 실학파들의 고뇌와 우정, 사랑과 투지를 다룬 소설 '방각본 살인사건' 을 최근에 발간하게 됐다.

● 10년의 준비, 1년6개월 산고 끝의 결실

김 교수가 '방각본 살인사건' 에 관한 글을 기획한 것은 무려 1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나 쓰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소설을 엮을 수는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론이다.

혹자는 뛰어난 영감과 감성을 통해 글을 쓸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일부 천재와 같은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라는 생각에서이다. 특히 김 교수가 주로 다루는 역사소설은 더욱 그렇다. 글을 쓰기에 앞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그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서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작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러면 본격적인 집필 작업이 이뤄진다. 그 때부터는 체력전이다.

이 작품은 10여년간 틈틈이 준비해온 자료들에 대한 6개월의 분석과 6개월의 집필, 6개월의 탈고 시간을 거쳐 세상의 빛을 보게됐다.

김 교수는 '방각본 살인사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필사본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 서포 김만중과 관련한 추리소설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을 쓴 바 있다. '방각본 살인사건'은 방각본 소설이 유행했으며 실학파들이 전면적으로 정치권력에 등장하던 시기와 관련한 소설로서 차후에는 활자본 시대인 일제시대 무렵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쓸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각본 소설이 유행하던 시기에 대해 김 교수는 "문학작품의 보급은 대략 필사본, 방각본, 활자본 방식을 거쳐 현대의 인쇄·출판 방식으로 변천해왔다.

특히 조선후기 방각본 소설의 유행은 문학작품의 대중적인 보급과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며 문학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 교수에게 18세기는 문학사적인 흐름의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기만이 아니다.

"이 시대는 조선후기 개혁 임금으로 평가되는 영·정조가 집권하던 시기로 실학사상으로 무장, 국가개혁을 도모하는 실학파들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편입되던 시기이다. 이는 지금의



노무현 정권 출범과 386세대가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배경과 매우 흡사한 구조이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듯이 역사소설을 찾는 것도 현대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시기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애정에 근거, 김 교수는 이 시기를 배경으로 차후에는 '열녀문의 비밀(가제)', '왕과 나(가제)' 등의 집필도 계획하고 있다.

● 문헌고증 통해 역사성 획득

김 교수는 실학파에 대한 진솔한 탐구로 '방각본 살인사건'을 이끌고 있다.

"사실 이제까지 실학사상과 실학파에 대해서는 절대선이라

고 할 정도로 모두들 좋게만 평가해왔다.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실학자들이 모두 옳았으며 항상 바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시기와 그들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논거를 세우기 위해 김 교수는 철저한 고증에 매달렸다.

"독자들은 소설에 나오는 박지원, 박제가 등의 등장인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사시간이나 국어시간에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독자들이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방각본이란? 조선 후기에 상인들에 의해 목판으로 각서(刻書)되어 서점에서 판매되던 일련의 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 시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 때문에 가서 중에서도 관각(官刻), 사각(寺刻), 사각(私刻) 등과 구별된다. 이런 방식으로 간행되고 유통된 소설을 '방각본 소설'이라고 한다. 목판본이 중심이었고 상인들의 이윤 추구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주된 독자층은 서리, 농민, 부녀자 등 서민들이었다. 독자의 기호에 영합하는 오락적인 소설의 출판을 가속화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 계층에 한정되던 소설 구독 기회가 서민층으로 확대, 다양한 소설 작품의 출판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소설 발달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필사본 - 방각본 - 활자본으로 이어지는 소설출판계획

이 소설은 그들의 생김새는 물론, 말과 행동까지 그 당시에 발간된 책들의 고증을 통해 복원하고 있다"며 고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김 교수는 그 시대에 발간된 각종 참고문헌에서 서로가 서로를 묘사하는 있는 글을 통해 등장인물들을 그리고 있다. 또한 그들이 나누었던 말도 소설에 그대로 담았다. 상권 초반부에 나오는 코끼리 및 낙타 등에 대한 대화 등이 그 예다.

● 철저한 시대상황 반영

국문학을 전공하고 문예창작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지만 김 교수는 사학과 철학에도 조예가 깊다. 그가 다루고 있는 역사 속의 등장인물이 문학을 비롯해 철학, 사학에 모두 능통했기에 글로 옮기려면 필히 그들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박지원이 문학, 철학, 역사를 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그를 형상화하려는 소설가 역시 그 정도의 공부는 해야한다. 그래야만 원하는 만큼의 인물분석을 할 수 있다"며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방각본 살인사건'을 읽다보면 다른 작품들과 다른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그녀, 그들이라는 인칭대명사들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김 교수의 고집 어린 시대상황 반영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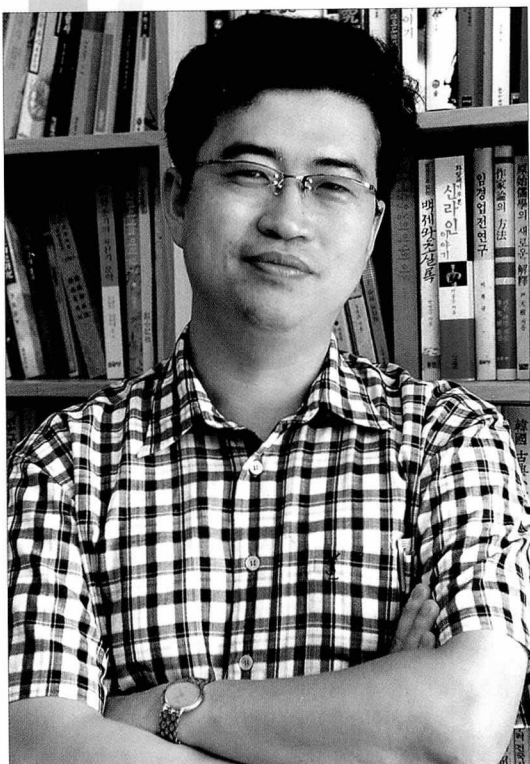
"18세기에는 그, 그녀, 그들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이는 일제시대 소설가 김동인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말로 일본어에서 쓰이는 피, 피너 등을 번역하는 과정에 생겨난 것이다. 18세기의 시대 상황에 맞게 정확히 쓰기 위해 그 당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는 설명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 대해 대부분의 독자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글을 읽어나갈 것이다. 작가 혼자만의 스트레스인 셈이다.

● 생명을 불어넣는 탈고 과정

김 교수는 비교적 작품을 쓰기 전에 준비기간을 많이 갖는다. 역사소설이 많아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사전준비기간 후 집필의 단계에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3분의 1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소요한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원고작성과 탈고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탈고하는 과정이 제일 스트레스가 심하다. 탈고 과정에서는 로맨스가 강화되기도 하고, 추리물의 요소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처음에 기획했던 것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결국 탈고의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비로소 자신만의 색깔, 작품으로서의 생명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거쳐 책이 발간되면 김 교수는 고정독자들의 반응에 제일 신경이 쓰인다. "새로 나온 작품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단연코 고정독자들이다. 이들은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이전작품보다 낫다고 평가하면 마음이 놓이고 이전 작품만 못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모든 작가들에게 고정독자들은 존재하고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발로 뛰어야 숨쉬는 글 쓸 수 있어

김 교수는 글쓰기에 치열한 고민과 습작으로 20대 중·후반기를 보냈다.

“3~4년 동안 치열한 습작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힘들었다. 그때 당시 정말 수많은 작품을 섭렵했다. 이 작품을 읽으면 길이 보일까? 저 작품을 접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향후 작가가 되면 학교의 형태이던, 학원의 형태이던, 그 어떤 형태이던 간에 습작의 과정에 있는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조언해 주고 또 서로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망이 문예창작과 교수의 길로 인도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이후 17권의 소설을 출간하면서 아니 그 이전의 습작기간을 통 털어 김 교수가 목숨같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작문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발로 뛰어야 살아 숨쉬는 글을 쓸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원칙은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혹은 작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낼 수 있는 그의 메시지다.

“세상은 무섭다.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책을 낸다는 것은 자기를 발가벗겨 독자에게 보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독자들에게 자신감 있게 발가벗겨지기 위해선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라는 완고한 믿음 때문이다.

● 극작가 및 환타지 분야 도전하고 싶어

“우리 역사에서 빛나는 업적들이 모여 있는 시기, 10년을 기획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방각본 살인사건’의 두 주인공(이명방, 김진)을 통해 몇편의 역사추리소설 시리즈를 더 발간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리물은 여름에 주로 출시되므로 후속 작품은 내년 여름을 대비해 발간할 예정이다”는 김 교수는 역사소설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욕심이 많다.

“올해 11월에 이곳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성곡오페라단과 함께 러시아 페체스부르크 지역에서 오페라 ‘이순신’을 올릴 계획이다. 물론 대본을 썼으며 지금 연습 중에 있다. 러시아 공연이 끝난 후에는 전국 순회 공연도 생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극드라마 등의 방송극작도 도전대상이다”라며 넘치는 창작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화소설이나 환타지 소설 분야도 김 교수가 개척하고픈 영역이다.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의 신화가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얼마전 북부 유럽의 신화와 같은 스토리의 ‘반지의 제왕’이 전세계에 걸쳐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는 이야기 구성이 탄탄하면 충분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화적인 배경이 더욱 풍부한 아시아 특히 중국, 일본의 신화들과 더불어 동아시아권 신화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 “환타지 소설에도 관심이 많은데 환타지 소설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산업과 연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다”라고 향후 바람에 대해서 언급했다. (조갑준 기자)

종이 상식

종이 제조과정 중 첨가되는 충전제와 사이즈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충전제(Filler)는 종이의 품질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성 첨가제의 일종입니다. 충전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종이의 내부조직을 치밀하게 한다. △불투명도 및 평활성이나 광택 등의 인쇄적성을 향상시킨다. △백색도를 높인다 등입니다.

대표적인 충전제로는 활석(Talc)과 탄산칼슘(CaCO₃), 이산화티탄(TiO₂), 클레이(Clay) 등이 있습니다.

사이즈제(Sizing agents)는 종이에 내수성을 부여하고, 잉크의 번짐을 방지하는 약품입니다. 셀룰로오스 섬유로 구성된 종이는 기본적으로 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수지, 화장지 및 종이수건 등은 종이의 우수한 흡수 특성을 활용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밖의 지종은 정도는 다를지라도 내수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제조과정 중 사이즈제를 첨가합니다. 흔히 사이즈제를 첨가하는 공정을 사이징(Sizing)이라고 합니다.

책의 두께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책의 두께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지종에 따른 평량별 두께 X 페이지수 X 1/2) + 표지두께를 하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리제지 아트지 120g/m²의 두께는

98±5μm입니다. 표지를 제외한 전체가 100페이지이라면 98 X 100 X 1/2 = 4900으로 대략 0.49cm가 됩니다. 참고로 평량별 두께는 각 제지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께를 계산하기전 제지사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종이의 백색도와 광택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백색도란 빛에 대한 정반사도를 측정하여 종이의 흰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MgO(산화마그네슘: 매우 흰 물질로 백색도 100%로 간주)에 대해 상대적인 반사도를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이와 혼동되는 것이 백감도인데, 이는 사람이 희게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는 백색도가 낮은 종이라도 형광염료 등을 첨가하여 백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백색도가 종이의 흰 정도를 나타내는 반면, 광택도는 종이의 평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보고 눈이 부신 이유는 다이아몬드로부터 반사되는 빛 때문이다.

아트지가 반짝 반짝 빛이 나는 이유도 빛이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종이에 있어 광택도는 외부로부터의 광선을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종이 얼마만큼 평활한가의 척도가 됩니다. 평활한 종이일수록 정반사율이 높고 따라서 광택도가 높은 것입니다.